

# 계곡훼손 이럴수가

박 종 필

얼마전 휴일을 이용하여 근교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찾게 되었다. 가벼운 행장을 하고 시원한 계곡과 숲을 따라 산을 오를 수 있는 코스도 좋으려니와 삼림욕의 효과까지도 맛볼 수 있어 여가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이곳 또한 여느 국립공원 못지 않게 그 나름대로 독특하고 수려한 자연경관미를 갖고 있어

산행 후 맑은 물·맑은 공기를 벗삼아 계곡 한 곳에 자리잡고 잠시나마 명상에 잠겨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곳내에 소재하는 유원지에 있다. 말만 들어도 시원한 계곡을 사이에 끼고 즐비하게 들어선 요식업소. 일부 업소이기는 하지만, 손님유치를 위한 보다 넓은 공간확보를 위해 계곡주변을 너도나도 질세라 파괴한 행위나 노래방을 연상케하는 최신 앰프시설과 고성방가하는 취객의 행태는 상스럽기 그지 없는 모양세였다.

자연은 선조가 우리에게 물려준 것처럼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닌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재산이라는 평이한 논리를 일상생활에 쫓기어 너무도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산업화의 부산물로 전세계적으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환경문제는 단순히 도회지에서 야기 되는 공장의 폐수나 각종 공해 등에 의한 생활환경오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비단 북한산 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여타 국립공원내의 일부 몰지각한 유흥업소의 호객행위나 앰프시설 그리고 취객 등의 행태문제는 여기서 차치하더라도 자연경관중 으뜸인 계곡의 파괴까지 훼손행위는 결코 간과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다.

우리는 자연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자연의 소리없는 외침을 더 나은 “삶의 질”의 욕구충족을 위해 “개발”(development)이라는 미명하에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누누이 보도된 자연파괴의 실태를 피부로 느끼며 실로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연은 우리의 기준없는 놀이터가 아니다. 어린아이를 기르듯이 잘 가꾸고 보호하고 보존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맑은 물, 맑은 공기 그리고 삼림욕의 순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삶의 질”향상에 따른 여가생활의 수요증가는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이다. 과거는 물론 현재와 같은 자연의 개발과 이용, 이용과 훼손의 비례적인 함수관계는 제도적 차원에서라도 더욱 더 강한 행정규제와 사법처리로 청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자연파괴와 생활환경오염에 의한 환경 문제는 자연애호에 대한 우리 모두의 냉철한 자기각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

(독자·서울 구로구)

“八角亭”은 會員여러분과 讀者여러분의 쉼터요, 討論場이다.

自然을 畏敬하고 사랑하는 뜻있는 이의 거리낌없는 所信, 所懷, 提言, 建議의 글월을 기다린다.

200字 原稿紙 5매내지 10매 範圍內에서 玉稿를 정리, 送付하시기를...